인간과 하천 5
River & Culture

하천에 얽힌 옛이야기

한강에서 다시 태어난 구두쇠

신 현 배 | 시인, 아동문학가
(4201708@hanmail.net)

옛날 어느 시골에 인색하기로 이름난 '최 부자'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입을 모아 최 부자 흉을 보았습니다. 이마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양반이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최 부자는 급한 볼일이 생겨 서울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남을 시킬 텐데, 본인이 가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떠나기 전에 부인에게 당부했습니다.

"곳간 열쇠를 줄 테니 잘 간직하시오. 아무도 곳간에 들여보내지 마오. 하인들을 시켜 밤마다 곳간을 지키시오."

그러나 부인은 최 부자가 서울로 떠나자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굶주린 동네 사람들을 보다 못해, 곳간에 있는 곡식들을 풀어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한편, 서울로 떠난 최 부자는 이틀 만에 한강에 닿았습니다. 한강만 건너면 얼마 못 가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 부자는 나루터에서 배를 탔습니다. 나룻배는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미끄러져 갔습니다. 뱃사공은 노를 저으며, 흥에 겨운 듯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강을 반쯤 건넜을 때였습니다. 뱃머리에 앉아 강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던 최 부자는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강물 속에서 시커먼 물체가 산처럼 솟아오른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이무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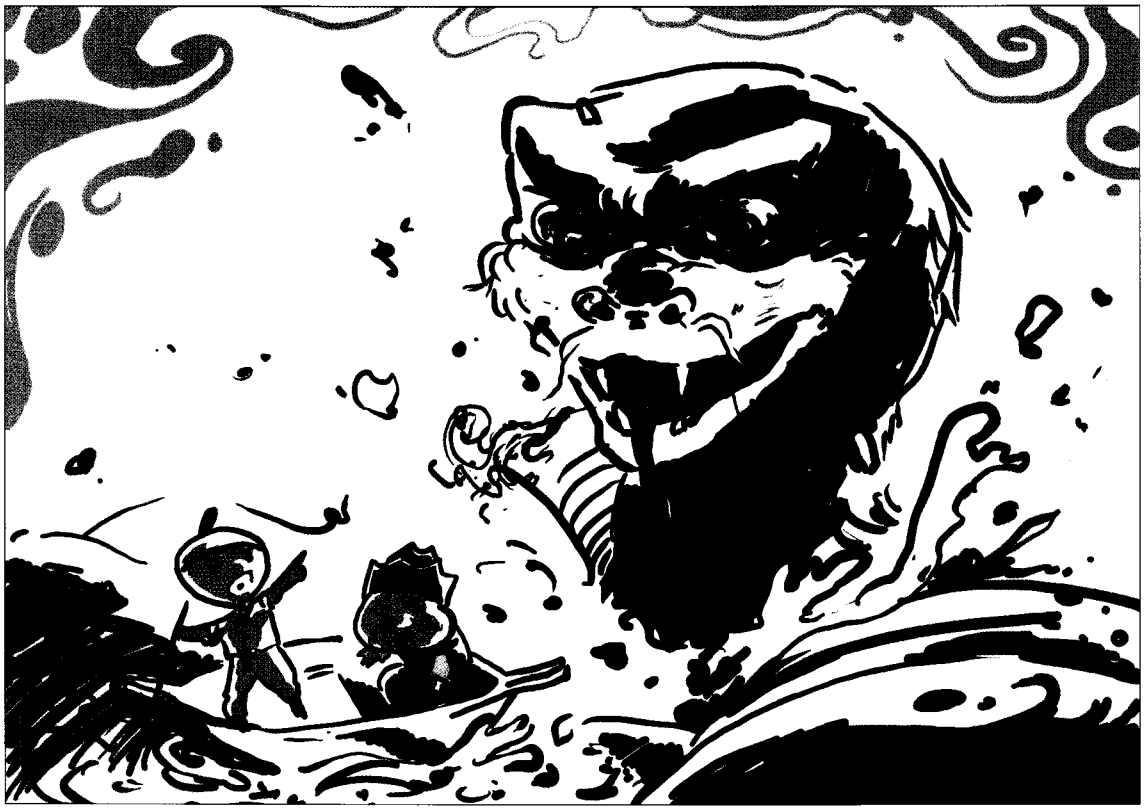
배가 기우뚱거렸습니다. 뱃사공은 너무 놀라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는 뱃전에 엎드려 이무기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천 년 묵은 이무기다. 일 년에 한 명씩 악한 사람을 잡아먹어, 작년까지 999명을 먹어 치웠다. 이제 한 명을 더 잡아먹으면 천 명이 채워져 용이 된다. 나는 네놈을 잡아먹으려고 오늘까지 기다렸다. 네놈이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제 욕심만 채우고 산다며?"

이무기의 말을 들은 최 부자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이무기 나리,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목숨만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으니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이무기는 최 부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운이 좋은 놈이다. 나는 너를 잡아먹으려고 일 년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나는 너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되었으니 안심해라."

"예? 그럼 저를 살려 주시는 겁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무기 나리."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네 아내에게 감사해라. 네 아내가 너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네가 목숨을 건진 것이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너는 오늘 나한테 잡아먹혔을 것이다. 아내를 본받아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

말을 마친 이무기는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 부자는 한동안 넋을 잃고 뱃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그는 이무기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 동안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제 욕심만 채우며 살았다고 잡아먹으려 했다니……. 최 부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나는 헛된 삶을 산거야. 재물에 눈이 어두워 몹쓸 짓만 골라 했으니…….'

그는 그 동안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문득 부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운 아내야. 아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무기 밥이 되었을 것 아냐.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나저나 아내는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을 한 걸까?'

최 부자는 아내의 일이 퍽 궁금했습니다. 착한 일을 했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 뱃사공이 깨어나자 최 부자는 뱃사공에게 배를 돌리게 했습니다. 뱃사공은 처음 출발했던 나루터로 최 부자를 실어다 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서울로 가지 않고 고향 마을로 되돌아갔습니다.

집에서 남편을 맞이한 부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모르게 저지른 일이 있어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남편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도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이 아닌가 싶어 속이 탔습니다. 남편은 곳간 열쇠부터 찾을 것입니다. 열쇠로 곳간을 열고 들어가, 없어진 물건이 없는지 샅샅이 살필 것입니다. 곡식 수백 가마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다면 눈이 뒤집혀 길길이 뛸 것입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먼저 그 사실을 털어놓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안방에 마주앉자마자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용서를 빌 일이 있어요. 당신이 없는 사이에 제가 당신 허락도 없이 곳간 문을 열었어요. 곳간에 있는 곡식 수백 가마를 꺼내어 가난한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여보, 죄송해요. 저를 엄히 벌하여 주세요."

부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남편의 불벼락이 내려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은 부인의 손을 덥석 잡으며,

"부인, 잘하셨소. 정말 잘하셨소."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양반이 정말 남편인가, 눈을 비비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최 부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 덕에 살아 돌아왔소. 당신이 가난한 이웃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 주지 않았더라면 이무기 밥이 되었을 거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오."

최 부자는 어리둥절해하는 부인에게 한강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당하면서 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소. 사람은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말이오. 곳간의 열쇠는 평생 당신에게 맡기겠소.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우리 사람답게 살아 봅시다."

남편의 말을 들은 부인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은 한강에서 다시 태어나셨군요. 그래요, 우리 사람답게 살아요."

최 부자와 그 부인은 손을 맞잡고 다짐했습니다.

*** 약력**

시인, 아동문학가
조선일보,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
창주문학상, 청구문학상, 광명문학 대상 수상
시집 〈거미줄〉, 〈매미가 벗어 놓은 여름〉 외 지은 책 다수